



UNGC 10대원칙 이행 보고서

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
2017

CEO's message



사장 박정훈

CONTENTS

CEO 메시지

SBS미디어그룹 비전 / 사회공헌 핵심가치 / 대표 브랜드

SBS미디어그룹 사회공헌 대표 브랜드

Chapter 1

1. 희망TV SBS의 어제와 오늘
2. 희망TV SBS 앞으로의 방향
3. 희망TV SBS 그동안의 발자취
4. 희망TV SBS가 불러온 변화

Chapter 2

1.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변화
2.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
3.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활동
4. 국경을 초월한 행복 나눔

SBS 미디어그룹은 “함께 만드는 기쁨”이라는 비전아래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희망TV SBS>가 20주년을 맞는 해이자, “희망학교 100호”가 탄생한 뜻 깊은 해입니다.

이 시간 동안 SBS는 국내 방송사 최초로 CSR부서를 만들고,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기획/방영하는 등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SBS는 방송 콘텐츠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사업을 펼치며 나눔의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아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Smile Again”, 전국의 낙후된 지역아동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Dream With”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BS는 사회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래 사회공헌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로써 새로운 나눔의 가치를 창출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SBS는 UN글로벌컴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개 분야 10대 원칙에 대한 핵심가치를 지지하면서, SBS의 TV, 라디오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SBS미디어 그룹 비전 /사회공헌 핵심가치

SBS미디어 그룹은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갑니다'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미래', '즐거운 나눔'을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SBS미디어 그룹 사회공헌 대표 브랜드

생태 환경

물은 생명이다: 2001년부터 SBS가 대국민 약속으로 시작한 물 환경 개선 프로그램

나눔 실천

희망TV SBS: SBS의 나눔 실천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브랜드
[방송 프로그램] 희망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희망TV SBS 3대 사업] SBS희망학교, Smile Again, Dream With

미래 비전

SDF: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국제 포럼
미래한국리포트: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행동을 제시하는 연중 기획 프로그램

예술 지원

Chapter 1

희망TV SBS
20주년,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

희망TV SBS가 걸어온 길

PHASE 1

1991~2004년

도입기 사회공헌 동력 확보

〈사랑의 징검다리〉, 〈기아체험 24시간〉 등

사회공헌 TV 프로그램 방영 시작

미디어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이 반영된

사회공헌 활동 전개

TV 프로그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시작으로 모금 사업 시작

PHASE 2

2005~2017년

성장기 사회공헌 업그레이드

모금 사업 시작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행동을 제시

인프라 구축 사업 시작

PHASE 3

2017년~2027년

발전기

대한민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Collective Impact 추구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사회공헌 어젠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사회공헌 사업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미디어그룹만이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전개

‘희망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전개

1991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정규 프로그램 〈사랑의 징검다리〉 시작

1997 〈기아체험 24시간〉 방송 시작

1998 캄보디아, 르완다 긴급 구호 활동

2001 〈기아체험 24시간〉 제25회 휴스턴 국제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수상(플래티넘) 〈물은 생명이다〉 방송 시작

2003 서울디지털포럼(SDF) 개최 시작 「미래한국리포트」 시작

200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방송 시작

2009 〈기아체험 24시간〉에서 〈SBS 희망TV〉로 프로그램 명 변경

2010 차드 요나 스쿨 완공

2011 「미래한국리포트」 한국조 사보대상 대상 수상

2012 SBS 희망내일위원회 설립 〈희망TV SBS〉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시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 시작 드림오케스트라 창단

2013 〈희망TV SBS〉 유엔 글로벌 콤팩트, 올해 UNGC 가치대상 수상(미디어그룹 최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통영 아동지역센터 완공

2014 Dream with 봉사단 발대

2015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꿈틀꽃씨심터 건립

2015 〈희망TV SBS〉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희망학교 100호 달성

Collective Impact (집합적 임팩트)

Collective Impact란 기업, 정부, 국민, NGO, 학계 등 사회의 다양한 조직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의 특정 목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뜻합니다.

SBS는 Collective Impact가 오늘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의 진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된 자원과 강점을 갖고 있는 다양한 섹터의 플레이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하며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활동했던 주체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다 '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할 때, Collective Impact는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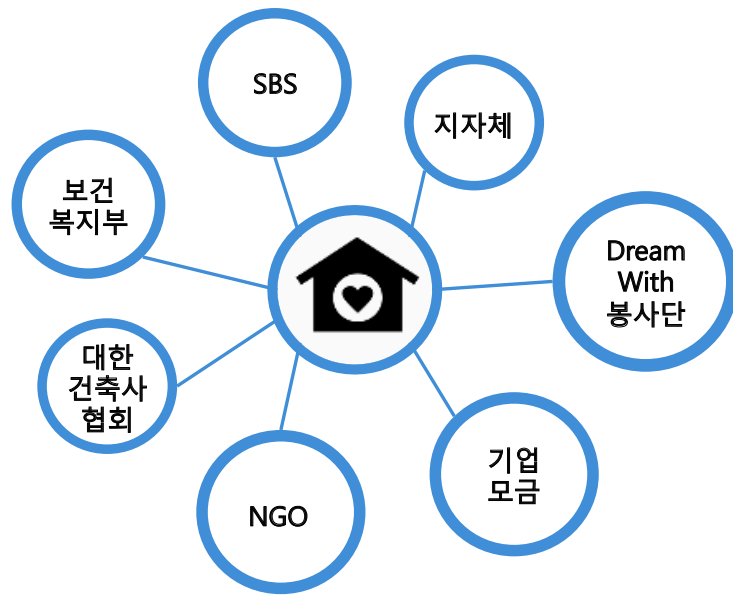
SBS 또한 CSR과 사회공헌 활동의 진정성과 효율을 위해 참여 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Collective Impact를 추구합니다.

SBS는 Collect Impact를 통해 여러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했으며, 앞으로 전개될 사회공헌 사업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고 실행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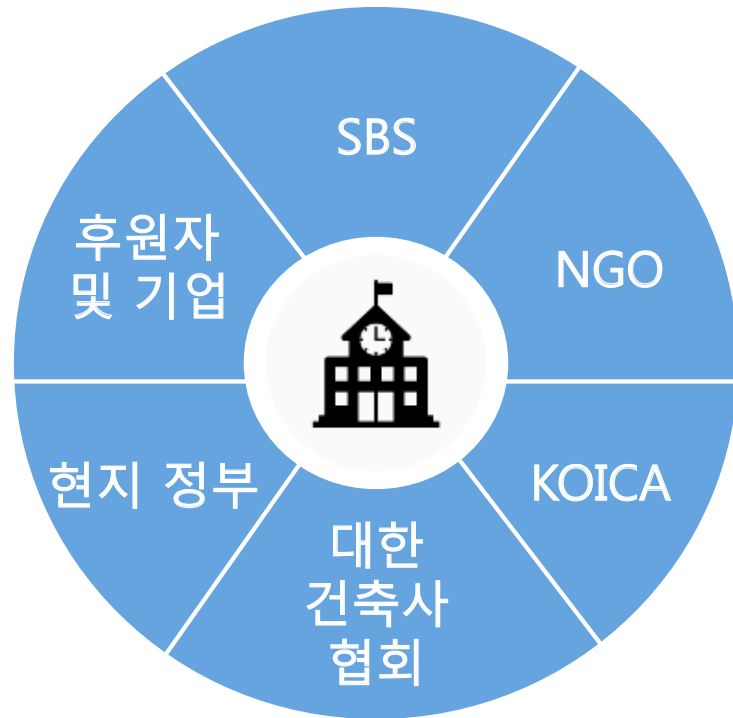
Collective Impact의 5가지 구성요소

SBS Collective Impact 모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SBS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은 공사 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솔루션 위원회를 발족해 정기적으로 건립 방향 및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처럼 SBS, 정부, 지자체, 기업, NGO, 대한건축사협회, 봉사단 등으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SBS Collective Impact 모델 희망학교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섹터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친 결과, 희망학교 100호라는 집합적 임팩트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SBS, 아프리카 현지 정부, NGO, KOICA, 대한건축사협회, 기업 그리고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희망학교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아동 노동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TV SBS
그동안의 발자취





희망TV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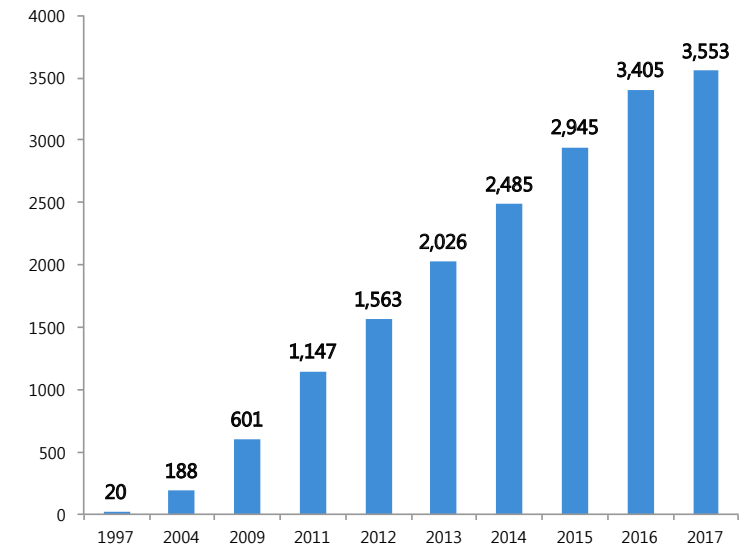
〈희망TV SBS〉는 〈희망TV SBS〉방송,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방송 및 3대 지원 사업을 통칭하는 SBS의 사회공헌 브랜드입니다.

SBS는 〈희망TV SBS〉를 통한 모금 활동으로 국내 환아 의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개선,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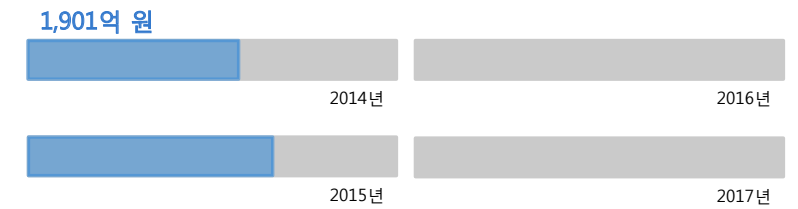
〈희망TV SBS〉는 시청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후원 덕분에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SBS는 나눔 실천 및 기부 문화 확산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희망TV SBS 총 누적 모금액



희망TV SBS 총 누적 후원자 수



〈희망TV SBS〉는 7개 협력 NGO와 함께 봄, 가을 연 2회 모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인 소중한 시청자 후원금 또한 소외된 이웃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사회와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값지게 쓰였습니다.

또한 SBS와 SBS 콘텐츠허브는 방송 수입금 중 일부를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의료 지원 사업 Smile Again

의료 사각지대 제로 운동

SBS는 의료 지원 사업 <Smile Again>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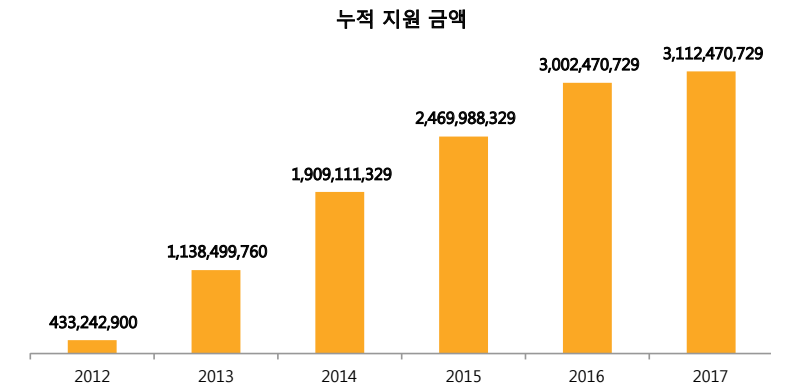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하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치료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빈곤층 자녀와 저소득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로 그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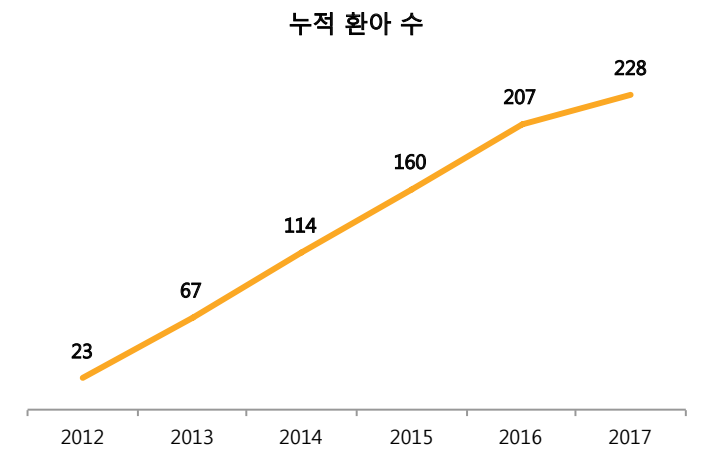
SBS는 아이들이 희귀난치병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환아 의료 지원 현황

누적 지원 금액



누적 환아 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Dream With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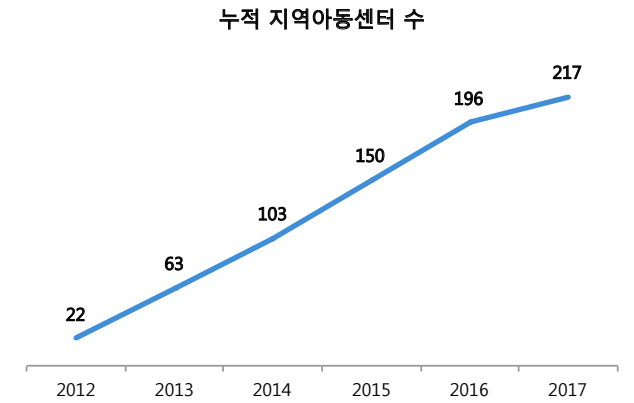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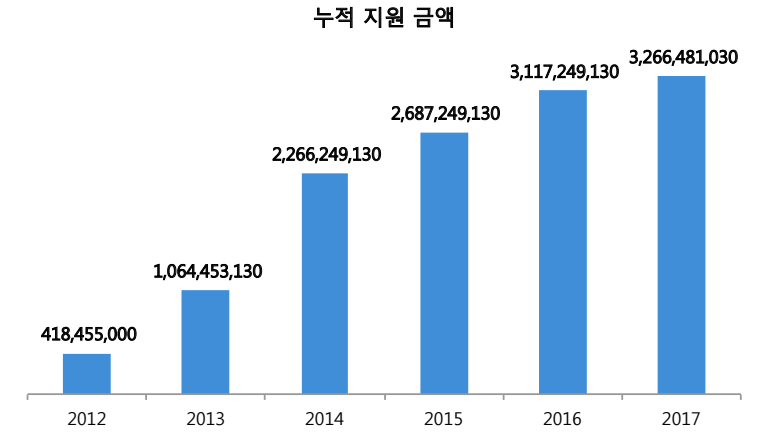
SBS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새롭게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드림 오케스트라, 미디어 교육,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SBS 대학생 자원봉사단 Dream with 봉사단은 SBS, 기업, NGO와 협력해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SBS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찬 우리 사회의 내일을 그려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 현황

센터 명칭	사업 연도	지역	예산	모금액
산내들 지역아동센터	2012~2013	전남 강진	250,000,000원	308,621,000원
통영 지역아동센터	2013~2014	경남 통영	690,000,000원	641,225,700원
화천 지역아동센터	2014~2015	강원 화천	227,000,000원	227,000,000원
산청 지역아동센터	2015~2016	경남 산청	520,000,000원	419,569,000원

지역아동센터 연계 프로그램

드림오케스트라



안산 드림FC



드림 합창단





SBS 희망학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및 건립

SBS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새롭게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며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드림 오케스트라, 미디어 교육,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SBS 대학생 자원봉사단 Dream with 봉사단은 SBS, 기업, NGO와 협력해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SBS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찬 우리 사회의 내일을 그려봅니다.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 프로젝트



- 세네갈 2개교
- 라이베리아 7개교
- 부르키나파소 3개교
- 차드 5개교
- 에티오피아 7개교
- 케냐 13개교
- 부룬디 7개교
- 말라위 6개교
- 모잠비크 3개교
- 콩고 2개교
- 시에라리온 3개교
- 코트디부아르 4개교
- 니제르 3개교
- 남수단 5개교
- 우간다 9개교
- 르완다 5개교
- 탄자니아 8개교
- 잠비아 4개교
- 마다가스카르 3개교
- 가나 1개교



SBS 희망학교 발전 방향



지난 5년 동안
4만 6천여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교육 혜택 지원



현재 희망학교
재학생 수 51,470명
향후 10년 졸업생
총 87,167명



2010 한국나눔봉사대상 기업 부문
대상
2013 UN Global Compact 가치 대상
2015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
상

희망학교가 가져온 변화

SBS 희망학교는 아이들이 누구나 학교에 오고 싶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교 신축, 교실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마련된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아이들의 기초 학력과 성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급학교가 건축되어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자, 아이들은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의식 향상 (전체 평균)



전체 조사 사업국 중 우수 국가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전체 평균)



교육 효과성 향상 (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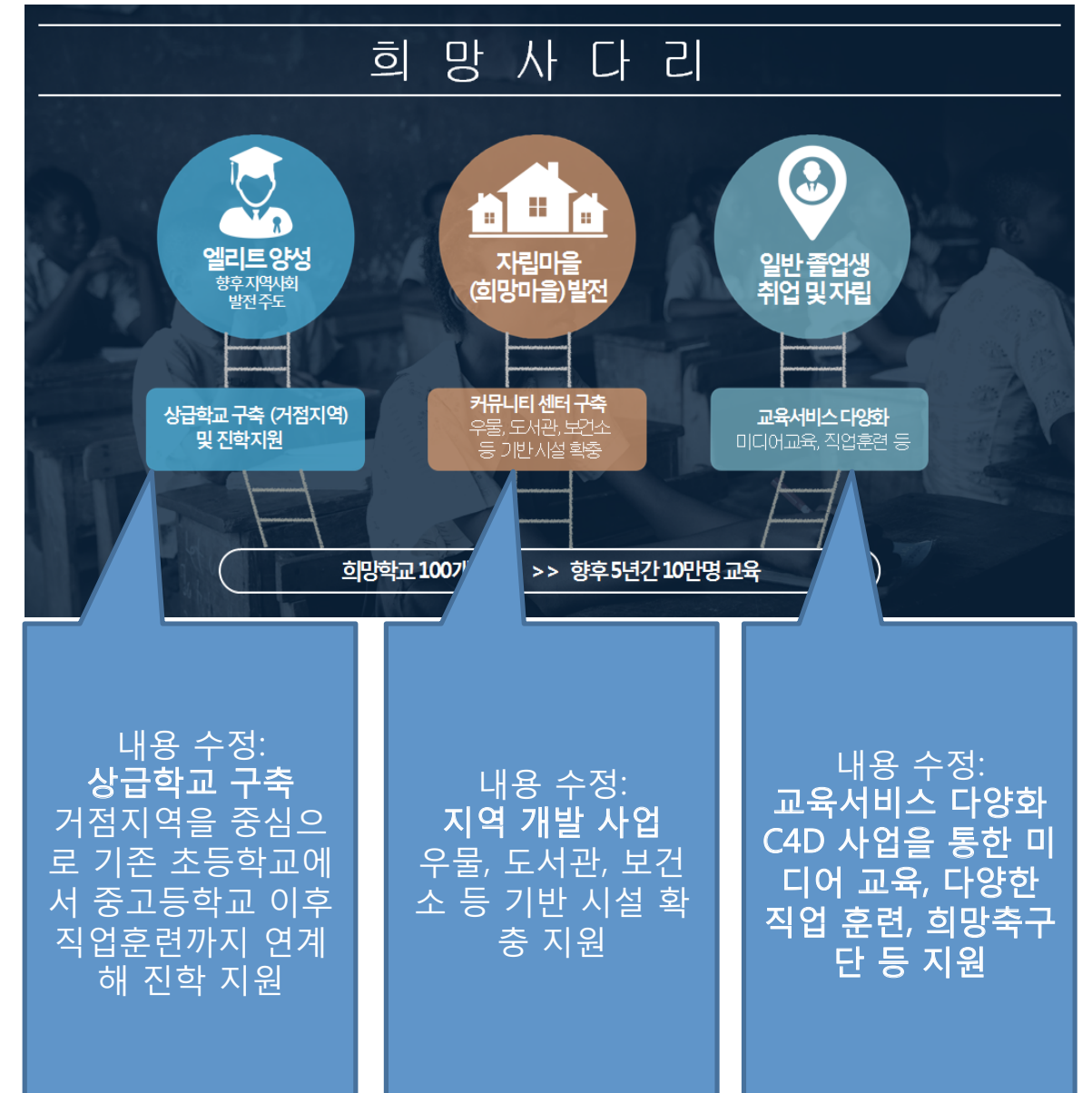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굿네이버스

희망학교 지원사업 주요 성과



*자료 출처: 굿네이버스

SBS 희망학교 발전 방향



1. 사회공헌 활동 유형

〈범례〉 현금/현물기부,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기타

2. 사회공헌 활동 분야

〈범례〉 사회복지, 학술장학, 환경, 보건
교육문화예술, 긴급구호, 기타



사업 관련 사항

World Vision

❖ 주요 예산 이슈

- 전체예산 대비 15.2% 지출 미달되어 직접사업비 잔액 USD 30,347 발생함
- 사업후반에 진행했던 학부모교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역행강화 훈련 비용(USD 3,100)이 아직 미지급된 상태임
- 교보재 구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2017년 2월말 조달 완료 예정 (USD 6,000)
- 물탱크 조달 및 대금지불이 지연되어 2017년 2월말 실적 예정 (USD 1,500)
- 사업비 잔액 USD 16,973로 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자책 도서관 1칸 건축 예정

❖ 향후 일정 및 지출 계획

행위 일정	지출예산금액	완료예상일정
학부모교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역행강화 훈련	미화 3,100 USD	2017년 2월말
교보재 구입	미화 6,000 USD	
집수 장치를 갖춘 물탱크 설치	미화 1,500 USD	
원판 2개 설치	미화 500 USD	2017년 6월말
전자책 도서관(e-library) 건축	미화 16,973 USD	
가나HWV 사업지원비	미화 2,274 USD	

WV KOREA 28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며,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왔습니다. 가슴 아픈 여러 사연들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따뜻한 후원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방영과 모금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나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방송사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그 후로도 '방송'이라는 미디어에 '나눔'의 콘텐츠를 담아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왔습니다. 현재는 모금 및 후원 활동과 더불어 인프라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에서 더 나아가 수혜자들이 미래의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모금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원금 모금 과정과 금액, 사용처를 공개함으로써 기금 사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협력 NGO들에게 예산 및 집행금액, 성과 등이 포함돼 있는 보고서를 전달 받아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습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의제를 제시하며, 미디어그룹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견인해 왔습니다. 또한 직접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hapter 2

희망TV SBS의
즐거운 나눔
이야기

우리가 함께하는
작은 변화



상생을 위한 나눔 활동

SBS 미디어홀딩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꿈틀꽃씨심터 봉사활동

- 임직원 자원봉사 및 헌혈



SBS

환경 정비 및 농촌 돕기 사회공헌 활동

- 도봉산 환경 정비
- 이화 벽화마을 거리 청소
- 축령산 일대 환경 정비
- 목동 근교 쓰레기 줍기
- 행주산성 환경 미화
- 고양시 덕양구 환경 정비
- 을왕리 해변 환경 정비
- 서울 봉산 돌레길 환경 정비
- 오픈세트장 부지 환경 정비
- 관악산 쓰레기 줍기
- 농촌 1사1촌 돕기 행사



SBS콘텐츠허브

서울대어린이병원 기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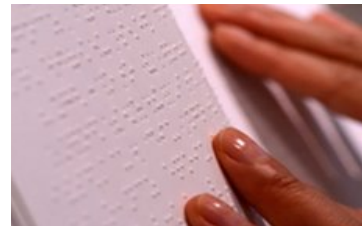
연탄 후원 및 배달봉사 활동



식수 봉사 활동



점자책 봉사 활동



SBS미디어넷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연계 방송 체험 실시
- 사우회 강의, 아나운서 체험, 대기실 견학 등



SBS 스포츠 시각 장애인 초청 재능 기부

- 스포츠 캐스터가 꿈인 시각 장애학생 초청, 경기 관람 및 방송 체험
- 향후 지속적 멘토링 진행



SBS A&T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 김치 나눔

저소득층 대상 김장재료 지원 및 김장 담그기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

양천, 신월 종합복지관 배식, 설거지, 청소 등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한 활동

영찬이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1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뇌병변 장애와 뇌전증을 앓게 된 영찬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찬이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지만 누나는 보육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아픈 영찬이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영찬이의 누나를 함께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찬이는 5살이 될 때까지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며,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호스로 분유를 먹어야 하는 힘든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영찬이는 표정이나 손짓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는다면 호전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엄마와 영찬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찬이의 엄마 또한 항상 영찬이를 돌보느라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했고, 늘 부담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으며, 아픈 아이를 키우며 맞닥뜨리게 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SBS는 영찬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육원에서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영찬이의 누나도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루관으로 분유만 먹을 수 있었던 영찬이는 치료를 통해 제대로 된 음식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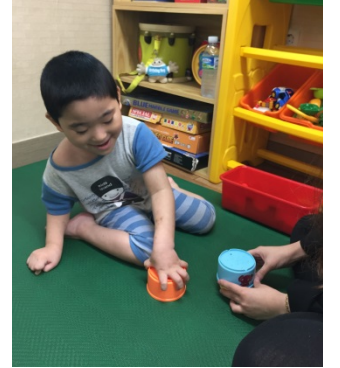
언어와 인지 치료를 통해 어휘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서울정민학교(특수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보조기구로 걷는 연습을 꾸준히 한 결과, 영찬이는 이제 기구나 휠체어를 이용해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글쓰기, 그리기 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표현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급격한 감정변화를 보이는 빈도가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찬이의 엄마는 영찬이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큰 힘을 얻었고, 영찬이의 장애 극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찬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엄마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찬이의 엄마 또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연이와 함께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고, 입천장은 열린 채로 태어난 가연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점점 옆으로 커지고 눈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거친 후 가연이의 부모님이 확인한 병명은 유전 질환의 일종인 '에이퍼트 증후군'이었습니다.

에이퍼트 증후군 환자가 수두증까지 같이 겪는 경우는 드물지만 불행하게도 가연이는 수두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수두증으로 인해 머리 셉트 수술을 받았고, 뇌가 부풀어오르는 탓에 두개골 유합증 수술 또한 받았습니다.

가연이는 채 4살이 되기도 전에 생과 사를 오가는 위험한 수술만 10여 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성장해 뼈의 모양이 달라질 때마다 같은 수술을 또 다시 반복해야만 합니다.

가연이의 엄마, 아빠는 가연이의 치료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지만 너무나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생활비도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까지 처했습니다.

그런 가연이의 가정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연이는 후원금을 통해 2016년 12월, 2017년 1월 두 차례의 양약수술 및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 당시 “엄마,” “네.” 정도의 말만 할 수 있었던 가연이는 양약수술과 치과치료를 통해 발음이 좋아졌고, 더 다양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턱의 부정교합을 치료한 덕분에 저작기능이 향상돼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특수학교 유치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초, 가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도움으로 손가락 분리수술과 짧은 손가락을 늘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장애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었던 가연이는 이 수술을 통해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연이의 치료진은 김스 폰 후 재활치료를 통해 손가락의 힘을 기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이와 함께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강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이의 부모님은 모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강이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강이네 가족은 정부 지원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했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BS는 강이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세상에 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웅얼이 수준의 말 밖에 할 수 없었던 강이는 치료를 통해 조금씩 언어를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파이팅!” 등의 말로 가족들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통해 무릎에 힘이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계단도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이는 현재 유아원에 다니고 있으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강이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엄마에게도 후원의 손길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작년 와우수술과 보청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아이를 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었던 엄마는 이제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이와 강이의 엄마, 아빠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강이의 가족들은 건강을 되찾게 되자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며, 밝고 씩씩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으로 무너진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다시 태어났어요!

산내들지역아동센터에 일어난 150일의 기적

지난해 8월 27~28일, 최저 기압 910hPa, 최대 풍속 65m/s의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볼리벤'이라는 이름의 태풍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잠잠했던 일상에 예고 없이 찾아와 한 어촌 마을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2012.08.27

예고 없이 찾아온 태풍, 무너진 아이들의 꿈

기초생활수급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30여 명이 꿈을 키워가고 있는 단란한 산내들지역아동센터도 볼라벤의 참상을 피해가지 못했다. 센터가 위치한 전남 강진은 볼라벤의 대표 피해 지역이었던 것이다. 배를 타거나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센터는 아이들이 제집처럼 여기던 곳이었다. "불 꺼진 캄캄한 집 대신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이곳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던 아이들, 아이들이 갖고 있던 센터에 대한 예정은 어른들의 눈에도 참 각별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형제조차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버린 현장을 목격한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폭우로 다 찾아버린 책, 천장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책걸상, 강풍으로 날아가 버린 지붕...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고사리 손길이 닿았던 그곳엔 이전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이대로 사라지는 것일까?

2012.09.03

김경란, 양준혁 전남 강진으로 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이들의 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홍보대사 김경란, 양준혁 씨와 함께 수해복구에 나섰다. 그들이 함께 한 '봉사번개'에는 단 하루 만에 스물다섯 명의 인원이 SNS를 통해 모집되었다. 일일자원봉사에 나선 이 '청예군단'은 센터의 건축 자재 정리부터 무너진 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재건하는 일까지 나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강진 주민들도 복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재건 위원회를 만들어 성금 1,100만 원을 모았다.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열심히 자기 집처럼 수해복구에 나서자 시름이 가득했던 주민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한가득 번졌다. 다른 이들이 건네주는 손길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흐려지는 듯했다.

2013.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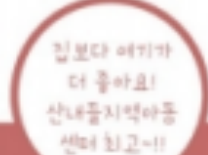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꿈꾸게 해주셔서

1월 30일은 잔치로 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지난해 태풍으로 무너진 산내들지역아동센터가 150일 만에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날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은 손님들을 위해 다과를 마련하고 진심어린 인사를 건넸다. 알록달록 풍선과 환하게 빛나는 아이들의 웃음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완공을 기념하여 드림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연주하는 감사의 선율이 작은 어촌 마을을 가득히 채웠다. 푸르른 바다를 달은 이곳 산내들지역아동센터에서 속속 커나갈 마당엔 아이들의 꿈, 그 꿈이 이제 다시금 힘차게 항해할 것이다!

산내들지역아동센터는 SBS (희망TV), 유니온스틸, LG, 가이아동차, 삼성전자,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4사, 전자산업협회의 후원과 JY아카데미 원유민 소장의 재능기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방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진 센터 때문에 힘 없이 걸던 아이들의 보금자리는 작은 희망조차 없어 보였다.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산내들지역아동센터 최고~!!



"쓰레기 아이들을 생각하니 무거운 일들도 거든데요~" 김경란 홍보대사와 양준혁 씨의 일일봉사활동 모습.

이날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 온 손님들도 작은 어촌 마을이 들떠었다.

한글판 산내들지역아동센터의 모습. 푸른 바다를 연상케 하는 건물 외관이 인상적이다. 옥상에 올라가면 마당엔 작은 어촌 마을의 전경이 내려다 보인다.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꿈을 향한 아이들의 힘찬 전진을 응원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행복나눔



SBS 희망학교 100호 & 희망 미디어 교육센터

아프리카에 희망의 창(窓)을 열다!

SBS 희망학교 100호 완공

탄자니아에 설립된 과라라 투마이니 중등학교는 2012년부터 진행된 SBS의 프로젝트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짓기'의 대장정을 마치는 마지막 희망학교였습니다.

탄자니아 대통령 및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 3월 잔지바르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1월 11일 SBS 희망학교 100호가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변화, 희망 미디어교육센터

100번째 희망학교에는 '희망 미디어교육센터'라는 특별한 공간이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희망 미디어교육센터'는 C4D(Communication for Development)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C4D란 개발을 위한 참여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미디어를 통해 수혜자의 행동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목합니다. '희망 미디어교육센터'는 방송·통신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희망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영감과 동기를 주고자 건립되었습니다.

미디어 기업 SBS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희망 미디어교육센터'는 '잔지바르 청소년 위원회(Zanzibar Youth Council) 산하 동아리 운영',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영상물 제작 및 상영회', '아동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교육권에 관한 인식 증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SBS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송장비 및 영상 콘텐츠 등을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미디어교육센터 운영위원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기획·촬영·편집·디렉팅까지, 스튜디오 연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窓), 미디어의 힘

'희망 미디어교육센터'의 미디어 동아리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권리 침해에 관한 이야기와 이슈를 주제로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합니다.

SBS는 이러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희망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리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학교'와 '희망 미디어교육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窓)이 될 것입니다.



SBS 희망학교 81호 삼리스 희망학교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입니다

거대한 쓰레기장에 세워진 삼리스 희망학교

삼리스 희망학교는 케냐 나이로비의 '단도라'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리스 학교가 속해있는 Dandora Phase 5는 나이로비 지역 내에서도 극빈민가에 속합니다. 동네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이 곳에서, 아이들은 시장에 내다팔만한 물건을 찾느라 길거리를 헤매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단도라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노숙자에서 희망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삼리스 희망학교의 교장인 Samson 역시 36년 동안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생활하던 노숙자였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던 Samson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배움에 대한 의지 하나로 마흔 살이 되던 해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고, 현재는 삼리스 희망학교의 교장으로 150여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인 아이들

하지만 Samson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리스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수가 부족한 탓에 아이들은 야외 공터의 허름한 움막에서 간신히 비바람만 피해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마저도 비가 내리면 바닥이 온통 오염된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이기 일쑤였습니다.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지만 아이들은 다시는 길거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영화 제작 워크숍에 대한 뜨거운 관심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삼리스 희망학교 아이들의 출석률은 90% 이상 유지되었고, 여러 아이들이 촬영과 연기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전문 촬영·편집 장비에 비해 배우기 쉽고 다루기 쉬운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업으로 아이들의 열성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영회에서 관람객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던 아이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던 아이들,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고아였던 아이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벗어나 삼리스 희망학교에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SBS는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꿈을 응원하고,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든든한 조력자 되려고 합니다.



SBS 희망학교 5호 한별학교

아이들의 순수한 눈동자로 바라본 아프리카

한국어로 인사하는 한별학교 학생들

에티오피아 남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 딜라. 그곳에 희망학교 5호 한별학교가 있습니다.

한별학교의 노란색 스쿨버스는 매일 아침 조용한 시골 마을의 거리를 힘차게 달립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해맑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한국어로 건넵니다.

최우수학교로 꼽힌 희망학교

한별학교에는 한국인 교장선생님부터 태권도, 영어, 컴퓨터를 가르치는 여러 명의 한국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 덕분에 한별학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있는 한별학교는 안전한 건물과 실력 있는 교사진, 우수한 교육 수준으로 딜라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될 만큼 시설과 교육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한별학교

한별학교가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췄던 것은 아닙니다.

한별학교는 2005년 160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주변에 보육시설과 학교가 없는 탓에 한별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수는 해마다 늘어갔지만 후원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한별학교는 경제적 문제로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소제목(보충 내용 반영)

이러한 한별학교의 소식을 접한 SBS는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 희망TV SBS에서 무엇을 촬영했는지) 그 결과 한별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별학교는 유치원 297명, 초등학교 560명, 중학교 173명, 고등학교 70명으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SBS 희망학교 78호 음팡고 중등학교 지역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세운 음팡고 중등학교

잠비아에 희망학교 78호 음팡고 중등학교가 세워진 이후, 음팡고 지역 10개 마을 아이들 약 500명이 중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비아의 중등학교는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있어, 초등학교에 비해 건축 승인을 받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음팡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문을 두드린 덕분에 건축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둘씩 힘을 모아 건축에 필요한 모래와 돌을 모아오는 등 희망학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먼 통학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고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진학률을 떨어뜨리는 위협요소입니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길이 너무 멀고 함해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지역 내에 학교가 없어 매일 다섯 시간씩 걸어 등학교를 하던 음팡고 지역의 아이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학교로 인해 음팡고 지역 아이들의 평균 등학교 시간은 30분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여학생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 임신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음팡고 희망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의 진학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자, 잠비아 지역 교육부에서 서신을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별학교에만 있는 특별교실, 사진반

2015년 2월, 한별학교는 사진작가 신미식님의 도움으로 전문 사진 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모아 모두에게 하나씩 100대의 일회용 카메라를 선물했습니다. 태어나 카메라를 처음 본 아이들은 가장 소중한 27번의 순간을 기쁜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이 촬영한 필름은 한국에서 사진으로 인화되어 다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아이들 손에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에는 매일 마주하는 학교 가는 길,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어른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도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담은 아프리카

2015년 5월, 한별학교 아이들이 찍은 사진으로 한국에서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기록한 '진짜' 아프리카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된 사진의 수익금으로 한별학교 사진반은 포토 프린터와 비디오 카메라를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TV SBS 촬영 당시 처음으로 꾸려진 9명의 사진반을 시작으로, Hanbyul Media Club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한별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세상과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SBS 희망학교 말라위

꿈을 갖기 시작한 소녀들의 목소리, 'Good Sisters'

공동체 일원으로 자라나는 희망학교 아이들

희망학교를 통해 개선된 교육 환경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과 미래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희망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나갑니다. 스스로가 영향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임을 깨달으며,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키워나가는 시민의식

시민의식이란 넓은 의미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 다시 말해 전근대적인 악습과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아이들이 속한 지역에도 점차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소녀들의 이야기

말라위의 희망학교 여학생들은 'Good Sisters'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Good Sisters'는 조혼과 출산 등을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13~18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여성 인권교육과 성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Good Sisters'의 학생들은 성교육, 에이즈 예방교육, 여성인권 및 직업교육을 받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실제로 '조혼방지법'을 발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세스 제레

(Moses Jere, 굿네이버스 말라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인터뷰

Q. Good Sisters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여학생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희생자로 받아들여지던 소녀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 입니다. Good Sisters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고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해요. 지역의 대표자들 앞에서 조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담당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이 부분을 가장 나누고 싶습니다.

Q. Good Sisters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좋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녀들이 개인의 인식 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리더를 만나고, 그들에게도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결국 그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해 말라위에서 조혼방지법이 발효되었는데, 그들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 셈이죠.

Q. 특별히 참여도가 높은 Good Sisters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는데 활동 이후 교실 내에서도, 커뮤니티 안에서도 성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리대를 만드는 작업도 인기입니다. 여성이란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던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또 자신을 떳떳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SBS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를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희망사다리>를 시작합니다.

3. 엘리트 양성 학교

아프리카 희망학교 100개 중 초등학교가 70%인만큼,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 중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거점형 중등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중등학교를 설립해 초등학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단절을 방지하고,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 거점형 중등학교를 통해 초등·중등 교육을 연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부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이들을 지원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엘리트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2. 기술직업 교육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직업훈련 센터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기술직업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직업 교육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의 실업인구 증가 방지와 빈곤계층 탈피를 목표로 합니다.

농업, 이미지용, 컴퓨터, 자동차 정비 등 수혜 지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한 직업 교육을 통해 아프리카에 양질의 노동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3. 자립마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마을 개발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 친환경 농업 방식 전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보건·영양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TV SBS는 '희망학교 100호 완공'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하여,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SBS는 희망학교 건축에만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여 더 좋은 세상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진짜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